

공관위 구성 마무리 공천 후보자 검증작업 돌입

민주당 광주전남 지방선거 시동

7대 범죄 관련자 공천 완전 배제

비대위 공천 혁신안 나올지 촉각

복당자 페널티 미적용 등도 관심

전남도당 450여명 이미 등록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6·1 지방선거 공천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고 중앙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 만큼 이번 지방선거 공천에서 혁신적인 개혁안 등이 포함될지 여부에 출마 예정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에 따르면 사·도당별로 공직선거 후보자검증위원회를 가동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후보자 육성 고르기에 들어갔다.

앞서 광주시당은 지난 15일, 전남도당은 지난 14일 각각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공모안을 공고했다.

민주당은 마감일까지 250여명 가량의 예비후보자들이 등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전남은 현재까지 450여명이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후보자 검증위원회는 공직 후보자로 부적합한 범죄 경력이나 신상 의혹을 가진 출마자들은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것이다. 현재 전남도당의 경우 공모와 검증 작업이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당헌·당규 제10호의 '공직선거후보자추천 및 선출직공직자평가규정'의 부적격 기준 적용과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마련한 7대 범죄 관련 후보의 완전 공천배제 내용을 담고 있다.

검증위원회의 예외없는 부적격 대상은 강력범죄, 음주운전(운장호법 이후), 뺑소니 운전, 성폭력·성매매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 경력자다. 특히 투기성 다주택 등 부동산투기 의혹 인사는 부적격 대상뿐 아니라 공천에서 완전배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 사·도당은 예비후보 등록을 하는 출마 예정자들에게 범죄 경력 증명서와 부동산 보유 현황 등을 제출받는다.

사·도당은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대선 기간 중 예비후보 등록 기간이 겹쳐 시간이 부족한 만큼 예비후보 등록과 동시에 당 후보자 검증 진행해 부적격 예비후보는 경선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도당은 후보자 검증을 통과한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2차 검증 및 적합도 조사 등을 거쳐 공천을 확정짓는 작업을 맡을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 구성도 사실상 마무리했다.

사·도당 공관위는 상무위원회와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승인 절차만을 남겨둔 상태이며, 늦어도 이달 말부터는 공관위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당은 청년과 여성의 선출직 공직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청년·여성 경쟁 선거구를 확대했으며, 전남도당도 청년·여성·정치신인 등의 선출직 공직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남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은 "도시지역 등 일부 선거의 경우 청년과 여성 등의 공직 참여 문호를 넓힐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며 "전남도당과 공관위는 예비후보 검증, 적합도 조사 등 공천 작업 전반을 민심에 기반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경선 방식이나 컷오프 대상, 전략공천 여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 하위 20%에 대한 20% 감점 규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김은혜 대변인과 함께 점심을 위해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선 기여도에 따른 복당자 페널티 미적용 등은 출마 예정자들의 초미의 관심사다.

또한, 대선 패배에 따른 중앙당의 비대위 출범으로 인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전남지역의 혁신적 개혁 공천 등이 논의될 수 있다는 점은 변수로 꼽히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尹 당선인 인수위 인선 통합·전문성에 초점 30% 안철수 추천 인사... 교수·MB계 다수

24명 중 여성 4명

재계 SK그룹 관련 인사 많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통합과 전문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17일 공개된 인수위 면면을 보면 이명박(MB)계, 호남 출신, 국민의당 추천 및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총 7개 분과와 1개 위원회, 2개 특별위원회로 구성된 인수위는 전문위원과 실무직원 등까지 포함하면 전체 인수위 규모는 200여명으로 예상된다.

7개 분과는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1(경제정책·거시경제·금융) ▲경제2(산업·일자리)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분과로 구분된다. 분과별 인원은 경제2분과와 사회복지문화 분과는 4명, 나머지 5개 분과는 3명씩 배정됐다. 이중 성별 구성을 보면 여성은 박순애 교수, 백경란 교수, 신유현 전 의원, 임의자 의원 등 4명이다.

외교안보 분과 간사를 맡은 김성한 전 차관의 경우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 외교안보차관위원과 외교교통상부 2차관을 지냈다. 김 전 차관은 윤 당선인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대선 캠프에서 외교안보 공약 수립을 주도해왔다. 외교안보 분과 인수위원으로 합류한 김태호 전 대통령전략기획관 역시 이명박 정부에 몸담았던 MB맨이다.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인 김정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는 MB정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을 지낸 인물이다. 김 교수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의 부인 김미경 교수의 사촌 동생이기도 하다.

호남 출신 인사로는 정부사법행정 분과 간사를 맡은 재선의 이용호 의원이 있다. 국민의당 출신 이거나, 이른바 '안철수 추천 몫' 인사들의 비중도 상당하다.

이밖에 전문가그룹에서 고산 에이티벤처스 대표(경제2분과 인수위원), 남기태 서울대 교수(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 백경란 성균관대 교수(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 신성한 흥익대 교수(경제1분과 인수위원), 유용환 전 SK혁신그룹장(경제2분과 인수위원) 등이 안 인수위원장이 직접 추천한 인사로 알려져 있다.

재계에서는 유독 SK그룹 관련 인사들이 많은 점도 특징이다. 유용환 전 SK혁신그룹장 외에도 왕윤종 동덕여대 교수(경제2분과 인수위원)는 SK중국경제연구소장·SK차이나 수석부총재, 이창양 교수(경제2분과 간사)는 SK하이닉스 사외이사를 지낸 바 있다.

경제1분과 인수위원인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은 박근혜 정부 출신 인사다. 2014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2016~2017년 기재부 1차관을 지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알가알부 말라” vs “알박기 인사 말라”... 문 대통령 인사권 놓고 공방

청와대 “인사권은 고유 권한”

국힘 “끝까지 자기 사람 챙기기”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7일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 알가알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낙하산·알박기 인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국민에 대해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인사권은 분명하게 대통령이 가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 16일로 예정됐던 회동이 취소된 배경에 임기 말 인사권 문제가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인사권은 여전히 문 대통령에게 있음을 못 박은 것이다.

문 대통령의 임기 내에는 한국은 총재제를 비롯해 현재 공석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곧 자리가 비는 감사원 감사위원 등 굵직한 자리에 대한 인사가 예정돼 있다.

박 수석의 발언은 이런 인사에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돼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기도 하다.

박 수석은 청와대가 한은 총재 지명권을 당선인에 넘기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내용의 보도를 두고도 “사실무근”이라며 “정해진 인사권을 문 대통령이 행사하지 않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박 수석은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회동이 백색서 없이 허심탄회하게 이뤄진다면 이 문제도 논의의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 수석은 “회동은 대통령이 당선인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들을 수 있는 자리 아닌가”라며 “(대통령과 당선인) 만나면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누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분이 만나기도 전에 참모들이 이를 알가알부하는 것은 이 자리를 편하게 만드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년 내내 공정과 정의에 역주행한 정권이라는 하지만, 끝까지 자기 사람 챙기기에만 혈안이 된 정권의 모습이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한 만큼 이제 산하기관,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에 새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민생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는 인물이 배치돼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고 강조했다.

또 “임기가 불과 1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문 대통령이 임기 2~4년짜리 직위에 이미 국민 심판을 받은 높은 문재인 정부 철학에 따라 인물을 임명하겠다는 발상은 국민 뜻을 정면 거역하는 오만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제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http://www.greenfuneral.kr/

光州市민의 장례식장은, 그린장례문화원!

보내는 이미 효심과 그리움으로 다시찾는, 장의 名家
광주시청에서 10분, 용전사거리에 있습니다.

사전상담하시면 **특별한 혜택** 이 있습니다!

그린장례식장 입소문 6선!

1. 호남-88-남해IC 진출구 전국 어디든 사물팔팔
2. 동시 주차 1천대 분관 일체형 주차타워
3. 동시 접대 350명 장공 등VIP절객실 13개소 완비
4. 가격은 저렴하고 품격은 최고의 **고감도 의전서비스**
5. 세계김치문화축제 대통령상 수상 **음식 맛 최고**
6. 창업주 아내소사이머티 정회원 **국민나눔대상 수상**

창업주 김 영 관 회장

상담 문의 250-4455
광주광역시 하서로 663길 97(용전동 1213-17)